

2008년 농장의 경영, 기본으로 돌아가자

2008년 戊子年 새해가 밝았다. 누구나 새해에는 많은 계획을 세우고 이것은 꼭 실천하리라 다짐하는 1월이다. 새해에는 유명인사가 던지는 '화두'가 세간에 화제가 된다.

2008년 우리 농장의 경영은 “기본(基本)으로 돌아가자”고 화두를 열고자 한다. '기본'이란 새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 '사물의 근본'이라고 말하고 있고, '근본(根本)'이란 '사물이 생겨나는 본바탕'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한다고들 한다. 우리 삶의 터전인 양계산업도 되 돌아보면 너무 많이 변했다. 하지만 변하지 말아야 할 원칙이 있다. 그것은 우리가 처음 양계를 할 때 배운 원칙적인 기술이다. 처음 양계를 배우는 사람들은 사육의 기본 원칙을 잘 지킨다. 하지만 조금 지나다 보면 너무도 중요한 원칙을 생략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이제는 기본으로 돌아가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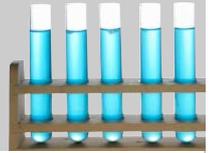
2008년 기본으로 돌아가야 할 중요한 이슈를 정리해보면서 새해를 설계해 보고자 한다.

1. 농장의 경영은 사육일지의 기록으로 남기자

한 나라에 대한 기록은 역사로 남게 되고, 농장의 사육일지는 농장 경영의 기록으로 남게 된다. 필자는 익산에서 20년 육계를 사육하신 사장님을 알고 있다. 그 분에게는 가장 소중한 보물이 한 가지 있다. 그것은 20년간 꼼꼼히 기록으로 남긴 사양기록부다. 처음 영농 일기처럼 쓴 사육일지는 계열 농장에서 발행한 사육일지까지 사장님의 족보와 함께 보관되어 있다.

왜 사양기록이 사장님의 보물이 되었는가 물어보니 이해가 간다. 모질게 가난한 시절 양계를 시작했지만 닭 키우는 기술이 잘 알려져 있지 않

+ 사양



조 현 성 수석부장
(주)하림

아 스스로 습득해야 하는 시기였다. 그날의 날씨, 온도, 습도, 병아리 상태, 사료, 약품 투여 등의 기록은 매년 반복되는 사육에 도움을 주었고, 분석을 통해 의사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었다.

무일푼으로 양계를 시작하여 지금은 50,000수 규모의 현대화된 양계장을 소유할 수 있었고 세 자녀들 모두 대학을 졸업해 사회에 나갈 수 있었기 때문에 사육일지는 자녀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보물로 관리되고 있었다.

농장 경영에서 기록은 중요하다. 주먹구구식 경영은 안된다. 모든 양계장의 상황을 정확히 기록하여 과학적인 사양관리가 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리를 하자.

2008년 시행되는 양계장 HACCP의 중요한 요소가 기록과 분석이며, 각종 계측기를 이용해 기록 분석함으로써 더 좋은 성적을 추구하고 질병을 예방하며 통제하는데 유용한 나침반이 될 것이다.

2. 적정 평당 사육수수의 선택은 필수 사항

밀사는 환기불량의 원인을 제공해 호흡기 질병을 발생시키고, 폐사율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 당장 뚜렷한 증세가 보이지 않더라도 사료섭취량과 사료효율이 나빠지며 성장이 부진하여 균일도가 떨어지는 피해를 가져온다. 과밀하면 깔짚 상태가 빠르게 불량해져 복부에 병흔, 스킨손상, 카니발리즘과 같은 악습과 약추 증가로 이어져 사육환경이 총체



적으로 악화될 우려가 높다.

한마디로 요약해서 단위 면적당 사육수수가 늘면 단위당 총생산량은 증가되나 체중이 저하되고 이에 따라 사료요구율도 나빠지며 피부에 멍이나 흠집이 생기거나 색깔, 풍미, 맛 등의 계육품질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어 오히려 손실이 많다는 점이다.

최적의 입추 밀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① 계사의 온도, 습도 및 환기량 조절 능력 ② 급이·급수기 유효 면적 능력 ③ 도계시점의 일령과 출하 체중 ④ 계사의 단열상태와 종류 ⑤ 닭 성장 및 유전적 특성 등 5가지 변수를 감안해 최적 밀도를 결정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계사 형태와 단열 능력을 기준으로 볼 때 출하 중량 기준은 1.7~1.8kg 출하를 목표로 해야 하며, 부분육 생산 및 수출 닭 사육을 목표로 평당 100kg이상 생산을 목표로 관리해야 한다.



3. 항생제 사용에 대한 투여는 수의사 처방에 따라 투여가 되어야 한다

사료 내 항생제 투여 규제의 강화는 사양관리의 새로운 방법을 요구받고 있다. 따라서 항생제 문제는 우리 양계산업의 변화를 더욱 가속화 할 것이며, 우리의 가치관과 사육에 대한 새로운 도전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사양관리의 기본 방향과 새로운 방법을 이해하고 그 동안 우리가 길들여져 있던 것들을 스스로 철저히 부수고 초심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이다. 계열사는 양계산업의 원재료인 병아리와 사료의 품질을 위해 투자해야 하고, 그동안 질병문제의 극복 방안이 새롭게 제시되어야 한다.

소비자가 최종 고객이다. 안전한 식품을 만들자. 무 항생제 인증은 업계 전체의 우려속에서도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계절적인 질병 발생과 취약한 농장 환경을 고려하면 아직 준비해야 할 과제가 더 산재되어 있는 것

이 사실이다.

또한 항생제를 대신 할 대체재의 개발도 가속화하여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하지만 약품에 대한 농가들의 인식과 약품을 취급하는 유통질서가 바로잡히기 전에는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기 힘든 것이 사육 현장의 모습이다.

이제 조금씩 새롭게 시도되어야 할 과제는 수의사 처방에 따라 약품투여가 되어야 하고 기록으로 남아 문제점을 들어내 놓고 원초적인 문제를 한 가지씩 제거해 나가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 최종적으로 우리 내부에 존재하는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 과제는 우리 스스로의 몫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4. 새로운 양계장 투자는 규모화 및 현대화된 시스템적 양계장 설계

이제는 세계 경쟁 시대다. FTA와 관련하여 정부의 농장 지원 방향이 결정되었다. 경쟁력 강화로 양계장을 규모화하고 선진화하는 정책이 금년부터 시행된다. 농업 체질 강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영농 규모화를 촉진하고 친환경 농업을 지원하며 농산물 상품가치 및 안전성 재고사업, 전문 농업인 육성 및 농림업 기술 개발 보급 사업에 집중한다.

2008년 FTA 추진과 DDA 협상 재개 등 대외 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축사시설 개선 등을 통한 생산성 도모를 위해 '농어업인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축산법 제3조'를 기반으로 75농가에 225억이 투자되는데, 보조 20%, 융자 60%, 자담 20%를 지원하는 사업이 본격적



으로 실시된다.

이 자금이 연차별로 투자되면 환경의 변화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무창계사의 선택이 가시화 될 것이며, 자동 원격제어 시스템이 적용되는 현대화된 양계장이 설계되어야 한다. 따라서 새롭게 양계장을 설계하는 사람이라면 출하 방법과 상차 방법을 포함한 도계장을 연계한 양계장의 설계를 표준화하는 밑그림이 그려져야 한다.

5. 자연과 조화되는 아름다운 농장 만들기

눈을 들어 자신의 농장을 둘러보라. 이곳에 우리의 아이들이 뛰어 놀 수 있는지 스스로 질문을 던져 보자. 사실 그렇게 할 여유가 없었다. 누가 몰라서 못하는가? 하지만 농민들의 정서만 호소하는 시대는 끝났다. 스스로 우리의 터전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의 농촌에 도시화에 지친 도시인들에게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그림 같은 농장을

꿈꾸며 아름다운 농장을 만들자.

양계장을 정원화하여 조그마한 연못을 만들고, 연못 속에 금붕어가 유유자적 헤엄치는 광경과 계사 주변엔 장미를 심어 한여름 벌과 나비가 공존하는 마을을 만들자.

양계장 주변에 유실수를 심어 계절에 따라 과일이 풍성하여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적합한 농촌에 아이들의 웃음이 가득 차도록 해보자.

6. 환경오염과 계분처리 문제

환경오염은 글로벌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제일 먼저 선택할 수밖에 없는 과제라고 볼 수 있다. 양계장에서 배출되는 계분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극복해야 할 최종 과제다.

먼저 혐오시설이라는 선입견이 팽배한 축산 시설 신축은 처음부터 어려움의 연속이다. 주민과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도 어렵지만 악취 문제에 대한 분쟁도 가시화 되는 현실이다. 이에 따라 양계장에서 생산된 계분의 처리도 새로운 이슈가 될 것이다. 계분처리가 순환 환경 사이클로 자원화 되도록 하는 국가적, 업계적 시스템이 가동을 준비해야 한다.

일본의 경우 양계장 설계시 가장 중요한 요소로 배수로가 2개 있는데, 양계장에서 소독이나 세척시 발생될 수 있는 오염물과 비가 오면 처리하는 배수로로 구분 처리하고 있고 계분은 건조장으로 이동해 태워서 보일러에 연결, 열원을 공급하며, 계분을 태운 회분은 유기질 비료로 태워 곡물로 되돌려 주는 순환 환

“ 2008년 끝이 보이지 않는다고 푸념하는 목소리가 많다. 이제는 기본으로 돌아가서 한가지 문제라도 집중하여 해결해 나가는 길이 국제 경쟁력 강화에 초석이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원칙으로 돌아가자. ”

경적 사업을 한다. 대량의 계분은 에너지 공장으로 옮겨 전기 생산을 위해 발전기를 돌리고, 태운 회분은 유기질 비료로 탄생한다.

우리나라도 계분 문제는 왕겨 구입 어려움과 더불어 현실의 문제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계분의 재활용 사육방법을 선택했다면 사육기간부터 중요한 관리 포인트로 관리해야 한다.

7. 동물의 복지

세계가 동물의 복지를 이야기 할 때 우리는 배부른 소리를 한다고 들었다. 동물의 복지를 소비자의 시각에서 접근할 때 우리의 눈높이가 갈아진다.

동물에게 충분한 활동 공간과 생산성, 농가의 수익은 반비례 공식이 있는 것이 사실이며, 사육밀도와 닭의 이동 차량의 공간까지 고려해야 한다. 도계 전 계류시설의 개선과 도계시 실신과정까지 고려한 동물복지에 대

한 이슈는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판단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은 아직도 우리의 현실과는 먼 내용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뒤로 물러설 수 없는 현실의 과제로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다. 2007년 말부터 곡물가의 상승과 원유가 폭등에 따라 원가압박이 시작된 지 오래다. 어느 순간 농가들은 이런 문제가 우리의 현실이 아닌 듯 잊기 쉽다.

하지만 이제 계열사와 농가는 한배를 타고 가는 동반자가 된 지 오래다. 농가의 어려움은 회사가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해 해결해야 하고 농가는 시설을 현대화하여 단열을 보강하고 생산성에 전력 질주하여 최저가의 생산 원가에 도전해 win-win 해야 한다.

2008년 끝이 보이지 않는다고 푸념하는 목소리가 많다. 이제는 기본으로 돌아가서 한가지 문제라도 집중하여 해결해 나가는 길이 국제 경쟁력 강화에 초석이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원칙으로 돌아가자. 